

치 사

오늘 제43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의 뜻과 마음으로 군승 법사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 군포교는 사안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과 난관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승법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관심,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제는 매년 10만 명이 넘는 청년수계 불자들이 탄생하는 자랑스러운 포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의 길로 나가게 하는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교는 현시대에서 불교 가치를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실천하고, 전하여 펼치지 않는다면 위축되고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불교가 갖는 역할이 대단히 중차대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전달할 사람들, 전법과 포교의 길로 나서겠다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법의 최전선이라 불리우는 군불교의 현장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헌신적으로 포교에 임하고 있는 우리 군승법사님들을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보람되고 감사한 마음이 한량없습니다.

무엇이던 발원과 정진없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진리처럼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간절한 정진의 시간이 지나야 싹이 트고, 꽃이 피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묵묵

히 최선을 다하되 너무 조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불교와 군포교는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는 선구자와 개척자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금 군중특별교구는 종단의 힘과 원력을 모아 논산 육군 훈련소에 법당을 신축하는 대작불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먼 훗날 불교의 희망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불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내일의 불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법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었던 부루나 존자의 원력으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부와의 경쟁보다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에 몰려나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원력과 신심이 모이고 쌓여 불교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승법사들님은 하나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 국군장병들을 제도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며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골동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힐 희망이 군불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젊은 불자들의 포교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정진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제43주년 군승의 날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이 귀한 인연을 바탕으로 군불교의 힘찬 도약을 위해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바랍니다.

불기2555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